

터키 의회, 리비아 파병안 승인 대리전 우려

터키 의회가 정부의 리비아 파병동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부와 서부로 갈라진 리비아에서 치러지고 있는 내전이 주변국의 대리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뉴스핌'에 따르면 무스타파 센토프 터키 국회의장은 전날 터키 의회가 325표 대 184표로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가 이끄는 리비아 통합정부(GNA)는 칼리파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주도하는 리비아국민군(LNA)이 최근 수도 트리폴리를 탈환하려는 움직임에 직면하면서 터키에 파병을 요청했다.

알-사라즈 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일 해상 국경과 안보 협력에 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리비아는 동부를 기반한 LNA와 서부에 기반을 둔 GNA가 충돌하면서 내전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LNA는 공격을 감행했으나 트리폴리 남부에서 친정부군에 의해 저지됐다. 그러나 LNA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트리폴리 남부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터키와 카타르는 GNA를 지지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은 배후에서 LNA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날 리비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가 파병안을 승인한 지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터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리아의 상황 역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구축함 2척 동시 진수 ... 지난해에만 9척

중국이 지난 27일, 1만 t급 최신에 055형 구축함과 해군 주력 052D형 구축함을 동시에 진수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해에만 구축함 9척을 진수하고 육해공 신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미국에 맞서는 군사 굴기를 본격화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시보는 최근 라오닝성 다렌 조선소에서 중국의 6번째 055형 구축함과 23번째 052D형 구축함이 진수돼 2년 뒤 취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해 진수한 구축함은 총 9척이다. 역대 한 국가가 1년간 진수한 구축함 수 기준으로 가장 많다. 지금까지는 1992년 미국이 진수한 6척이 가장 많았다.

055형은 112개의 수직발사 장치를 탑재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화력을 지닌 구축함으로 평가된다. 중국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이다. 중국은 첫 번째 055형 구축함인 난창함을 올해 4월 실전 배치했다. 052D형 구축함은 수직발사 시스템 64개를 갖춘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지스함은 공격 목표 탐색부터 파괴까지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최신형 무기 시스템을 갖춘 군함이다.

중국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번째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남중국해에 맞닿은 하이난 섬 쑤아에 실전 배치했다. 9월에는 중국의 첫 번째 상륙



강습함인 4만 t급 대형 075형 상륙강습함이 진수됐다. 075형 상륙강습함은 한 번에 대대급 상륙부대를 수송할 수 있는 미국의 주력 와스프급 상륙강습함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핵탄두 탑재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41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동평-17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중국이 강군몽(強軍夢)을 내세워 미국과 본격적인 군사 패권 경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탈출 군인들 난민 인정에 양국 정부 공방

브라질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군인들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할 것을 두고 양국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경 지역 초소를 공격하고 달아난 군인 5명에게 브라질 정부가 난민 자격을 인정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들 군인을 '테러범'으로 부르면서 "브라질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범죄인들을 보호하는 전례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라질 법무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인 2만1천여 명에게 지난달 초 난민 자격을 인정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국민 엑소더스(대탈출)' 사태가 벌어진 이후 브라질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난민 자격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아이티와 쿠바인들이 브라질 북부지역으로 밀려들면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난민 수용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십자위는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 주의 주도인 보아 비스타 시와 브라질-베네수엘라 국경도시인 파카라이마 시에서 운영하는 난민 수용시설을 현재의 13개에서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적십자위는 6개월 전부터 호라이마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난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용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